한국 불복장 진면목, 미국에 전하다

불복장작법보존회 2월 22일
美 스미소니언博서 시연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2월 22일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지하1층 로비에서 '불복장 시연회 및 관람객의 소통'을 열고 불복장작법 의식을 재연했다.

무관 · 성오 · 경암 스님 등 시연
'한국의 불상'展 일환으로 열려
"韓불복장 의식 경험해" 찬사도
불복장 주제 학술심포지엄 진행

한국불교만의 전통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미국 현지에서 재연됐다. 한국불교 문화 우수성을 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보존회)는 2월 22일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지하1층 로비에서 '불복장 시연회 및 관람객의 소통(A Korean Buddist Dedication Ceremony)'을 개최하고 불복장작법 의식을 재연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불복장작법의식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장 경암 스님을 비롯해 무관 · 성오 · 도성 · 정각 스님 등에 의해 재연됐다. 700년 동안 감추어져 왔던 의식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연회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복장작법 시연은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의 불상(Sacred Dedication: A Korean Buddhist Masterpiece)' 특별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3세기 고려시대 관음보살상과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경전과 직물, 곡물 등 복장물 72점이 전시되고 있다. 불상과 복장물이 함께 해외 박물관에 선보이는 첫 사례로 전시는 3월 22일까지 열린다.

시연회를 기획한 카스 윌슨 큐레이터는 "해외에서 처음 거행된 불복장작법 의식은 한국불교 의식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700년 전부터 행해진 한국불교만의 불복장 의식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시연회에 앞서 2월 21일에는 '한국의 불교조각과 복장물 문화'를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부여 무량사 발견 불상들 보물 지정

문화재청 2월 27일 공고
석탑 보수과정서 발견돼
고려~조선 초 조성 추정
"조각 기법 우수해" 평가



보물 제2060호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의 모습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상 4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안에서 발견된 고려~조선 초기 불상 4구를 비롯해 북장식 가야도기 1건, 조선시대 지도인 관북여지도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보물 제2060호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무량사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 1구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3구로서,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2층과 1층 탑신에서 각각 발견됐다. 금동보살좌상은 고려 시대로 조성시기가 추정되며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조성시기는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좌상, 지장보살좌상으로 구성됐다.

2층 탑신(塔身)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자료가 부족한 고려 전 · 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奉安) 신앙 및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구성과 도상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도 크며 상태도 양호하다.

문화재청은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조성 배경을 알려 줄 기록과 명문이 없으나 발견지가 분명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면서 "조성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어 역사 · 학술 · 예술적 의미가 커 보물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보물 제2059호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는 가야시대 고분 중에서 도굴 당하지 않은 복천동 11호분의 석실 서남쪽에서 출토됐다. 일반적으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도기는 훼손된 사례가 많으나 이번에 지정된 도기는 한 쌍의 기대(器臺, 그릇받침)와 항아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돼 이 시대 도기의 제작수준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보물 제2061호 '관북여지도'는 조선 시대 관북(關北) 지방인 함경도 마을과 군사적 요충지를 총 13면에 걸쳐 그린 지도집이다. 지리적 내용과 표현 방식 등으로 1738년(영조 14년)~1753년(영조 31년) 사이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북 문화유산 조사 · 보존 상호 협력"

국립완주문화재硏 · 전라북도, 학술연구 협약

조사와 보존관리에 문화재청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은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오춘영)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월 25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전라북도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과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이 용이해졌으며,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에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지면서 적극행정의 기초가 구축될 수 있게 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2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으로 전라북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역 문화유산 발굴 조사와 최신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 실천적 이해' 살핀다

불교학연구회 3월 21일 봄논문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오는 3월 21일 능인대학원대학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불교의 실천적 이해'를 주제로 봄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식이십론〉 타심지 난제의 인지과학적 해명(정현주, 전남대)' △'대승불교윤리의 공리주의적 접근(문유정, 동국대)' △'근대의 불교 문화인 일엽과 홍일(경완스님, 고려대)' △'명상 중 나타나는 도전적인 특이경험에 관한 연구(김수연, 능인대학원대학교)'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안환기(서울대), 조인숙(동국대), 류제동(서강대), 박병기(한국교원대), 김경집(진각대학), 김종진(동국대), 이수련(서울불교대학원대학), 하현주(서울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